주기도문 Ⅶ.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1. 시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왜 시험에 대한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다.'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험에 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셨다. 시험의 파괴력을 아셨다. 시험에 드는 자의 비참한 결과를 너무나 잘 아셨다. 그렇다면 시험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시험' 이란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가? 마지막 간구에 언급된 '시험' 은 신앙의 연단을 위한 일반적인 시험 (test, 약1:2~3, 고전10:13, 신13:3) 을 뜻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에 의한 파괴적인 시험 (temptation, 약1:13) 을 의미한다.

*** 시험(연단)**

[야고보서 1:2-3]
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시험(유혹)**

[야고보서 1:13-14]
13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4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2.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시험에 드는 내 자신이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시험'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다.'시험'의 존재를 인정하신다. 에수님의 가르침은'시험'이 아니라 시험에 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에 초점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의 주체가 되고 있는'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다.'기도'의 내용보다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주기도문의 내용 중'시험'에 대한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나'를 가장 제대로 인식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예수님은'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인간은 시험에 드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연약한 나, 시험에 빠진 죄인된 나'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시험'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나'에게 집중되어 있다. 예수님은 풍랑에 관심이 없으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가난과 배고픔에 집중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죽음'에 집중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풍랑속에 있는 제자에게, 배고픔 가운데 있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죽음안에 있는 사랑하는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으셨다.

3. 존재적 신앙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집중하지 않으셨다. 겉에 보이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집중하셨다. 그래서 간음한 여인과도, 저주받은 병자들과도, 그리고 죄인 취급 받았던 세리와도 아무 선입견 없이 함께 하셨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던'사람들'이다. 그들의 존재가 변화될 때 모든 문제는 사라진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존재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존재적 변화는 예수님이 생각하는'나'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께 비추어진'나'는 가장 가치있는 존재이다. 소중한 존재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자유한 존재이다. 기쁨의 존재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처한 현재의 시험과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문제와 시험이 없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바다에 풍랑이 지나고 잔잔해졌다고 해서 다시 풍랑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시험과 문제 앞에 선'내 자신'이다.

4. 시험이 커보이는 사람과 시험이 작아 보이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보라.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으로 시작 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시험이 없으셨는가?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볼 때 시험이 부각되어 보이지 않는다. 시험 위에계신 예수님의 존재감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이다.

반면, 가롯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보라. 그들의 존재는 너무나 미비해 보인다. 시험이 그들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이다. 예수님 안에서 존재감이 분명한 사람에게 시험은 언제나'시험'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감이 시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당당하다. 두려움이 없다. 반대로'시험'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시험에 압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험에 완전히 묶여 있다.

5. '시험'에 들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

[디모데 전서 1:15] ~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인간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 인식이'기도'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온전한 존재이며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겠는가? 기도는 간구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연약한 자기 자신'을 가장 제대로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표현 할 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라고 표현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괴수'가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상태가 바로'겸손'이다. 이런 사람은 자고하지 않는다.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6. 선악과를 먹을 수 밖에 없는 '나' 를 인식하는 것이 '원죄' 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도 증거하고 있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인된 인간 또한 증거하고 있다.

7.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께 기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 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나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에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질투와 시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권위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다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 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 문제와 갈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어떤 상황에 가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8.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주님과 깊은 단계의 교제로 들어가는 순간임을 명심하라.

이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알아야 한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분이시다.

9. 나의 연약함이 예수님 앞에서 먼저 노출되는 그 순간이, 제대로 하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되는 순간이다. 십자가와 예수님이 어느 때보다 강력히 계시된다. 그 순간이 바로 능력의 순간이다

10.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는 인간은 그 순간 위험에 노출되는 존재가 된다.

11. 다윗의 고백

[시편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고백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가장 강력한 고백이다. 자신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그 순간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 밧세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시점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돌려지는 그 순간이며, 그 순간 밧세바의 시험에 들게 된다. 시험이란? 시험하는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받는 나의 존재가 중요하다. 목욕하는 여인이 나쁜 것이 아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에게 시선이 계속 고정되어 있던 것이 문제이다. 시험이 문제가 아니다. 시험은 내가 빠지게 된 것이다

12. 시험의 존재를 인정하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 시험은 존재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한 번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본적이 없으셨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과 힘을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사랑은 존재를 인식하는 유일한 힘이다. 존재의 인식이 영적인 것이다

13. 원죄란?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순간적 부제이며,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 말고 선악과의 존재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이게 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다. 이것은 시선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그 순간의 '나' 는 시험에 노출되어 안전한 곳으로 부터 벗어난 존재가 된다.

14.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는 가장 강력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다.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진 삶을 말한다. 그 순간 우리 영에 주어지는 실제적인 능력은 '안정감, 부유함, 풍요함, 감사함' 이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가 되시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된다.

15. 주기도문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는 단순한 행위에 대한 기도가 아니다.

내 자신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이다.

16. 안전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매일 순간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 기도하자